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60% 나홀로 이주

한전 등 이주율 40% 미만...정주여건 개선 시급 지역균형발전 무색·공공기관 행정력 낭비 우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공기업 임직원 10명 중 6명은 '나홀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주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등이 가족이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섭(세누리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전국 혁신도시의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개별이주자 비율은 평균 58.5%, 가족동반 이주자 비율은 평균 30.8%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

한 한전 등 4개 기관 이주인원 3,429명 중 2,233명(65.1%)은 나홀로 이주했다. 1,196명(34.8%)은 가족과 함께 옮겼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은 1,666명 중 1,146명(68.8%), 한국전력거래소는 289명 중 173명(59.9%), 한전KDN 952명 중 595명(62.5%), 한전KPS 522명 중 319명이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주는 지난해(970명)28.5%보다 6.3%p 증가한 34.8%로 조사됐다. 한국전력 520명(31.2%), 한국전력거래소 116명(40.1%), 한전KDN 357명(37.5%), 한전KPS 203명(38.9%)이었다.

가족동반 이주는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40.9%, 전남 34.8% 순이었다. 반면, 충북과 경북 지역은 각각 14.4%, 18.2% 등으로 이주율이 낮았다.

기관별로는 경남혁신도시의 한국남동발전 49.3%, 부산혁신도시의 한국남부발전 47.5%, 울산혁신도시의 한국동서발전 45.0% 순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았다. 반면 충북혁신도시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4.4%, 경남혁신도시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8%, 대구혁신도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 19.2% 등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가족 이주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정주여건 미흡, 맞벌이, 교육환경 등을 꼽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반감제적으로 이산가족을 양

산하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나홀로 이주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반쪽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도시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권 혁신도시 위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반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주율이 낮았다"며 "학교, 병원 등 가족이 동반해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가족동반 이주가 될 때 혁신도시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 특별 분양, 교육 여건 개선 등 가족동반 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전국 현장소장을 비롯한 본사 팀장급 이상 임원진을 대상으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중흥건설, 하자제로 워크숍 성료 직장 윤리·안전교육 등 실시

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전국 현장소장을 비롯한 본사 팀장급 이상 임원진을 대상으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안전교육과 하자제로 교육 등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류영호 김엔장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오는 28일부터 시행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업무 연관성과 대처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우진 중흥건설 안전부 상무는 "현장에서부터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직원들의 안전 제일주의를 당부했다.

/서미애 기자

한·중 문화콘텐츠 저작권 교류 전남진흥원-중태미디어 협약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25일 중국 애니메이션협회, 콘텐츠 기업 등 2개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진흥원은 중국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엔타이메이선협회(중태미디어·회장 랑원리)와 한·중 콘텐츠 서비스 및 저작권 교류와 홍보, 신인 창작자와 작품 공동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국 미디어 광고기업인 북경중태문화미디어주식유한공사(대표 우빈)와 한·중 양국 간 도시홍보 협력 및 문화교류 행사 공동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진정보기술(대표 서금숙)과 중태미디어·엔타이메이선 3자간 '한·중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공급을 위한 합작투자계약'도 이뤄졌다.

오창렬 원장은 "그동안 지역 스토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들의 해외 진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우수 콘텐츠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2016 광주 에이스페어'에 참가해 영암 월출산 팡아트 문화상품, 섬진강 도깨비 및 담양 대나무 캐릭터 등 융합·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상품을 전시하고 지역특화문화콘텐츠 유통전시회, 열씨구나 별떡 와블와블 영상을 반영하는 등 홍보보스를 운영했다. /황애란 기자



보해양조는 지난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광주시 청년상인경연대회'에 후원상금 등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청년상인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보해 '청년상인경연대회' 2천만원 후원

보해양조가 지역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광주시 청년상인경연대회'에 후원상금 1,000만원, 주류 및 부대비용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7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청년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향토기업

보해양조는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며 후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년상인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한 10개 팀은, 특목 뛰는 짧은 감각으로 광주와 맛과 먹거리로 열띤 대결을 펼친 가운데 ▲반야 김재영이 금상 ▲메이소 이정현이 은상 ▲살뽀하우스 이순철이 동상의 영광을 안으며 상장 및 상금을 수상했다.

/서미애 기자

일본 키워바이어 초청 산지 투어 전남농협, NH무역과 300톤 수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키워 일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키워 수입·후속전문·유통업체 관계자로 꾸려진 한국키워수입단을 초청해 수출자인 NH무역(대표이사 김정룡)과 함께 생산 및 유통현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산지투어에는 수입업체인 Infarm, ANA, Halloday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해골폴드키워 개발자(전남농업기술원 조윤섭박사)와의 간담회, 생산현장 및 Packing House 투어, 유통·수출전문가와 공동업무협의 등을 가졌다.

전남키워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10월 중순부터 수입키로 결정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9월 일본 폴드키워 수출확대를 위해 Infarm과 협약을 체결했다. NH무역과 함께 총 38톤·18만4,000달러를 수출했다. 올해는 폴드키워 3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순천과 별교에 폴드키워수출단지를 조성하고 농가현장컨설팅 실시했다. 7월에는 농협의 생산·유통·수출전문가로 꾸려진 일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키워가 세계인의 키워가 되어 전남 키워 생산자와 농협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일본시장개척단 파견과 한국키워수입단 초청행사 등 수출시장을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취업탐색 기업 탐방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철)는 최근 광주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취업탐색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탐방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지역소계 우수 중소기업의 취업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공업고등학교 전자과 2학년 35명은 ㈜골드벨과 ㈜디지탈테크를 방문해 회사 현황을 소개받고 공장을 둘러봤다. 특히 ㈜골드벨은 드론사업을 선보이며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철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퍼뜨려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정부 3.0 보편복지부

내일의 행복노후

오늘의 국민연금이 만듭니다

NPS 국민연금공단

“예전의 일순아,
네 덕분에 요즘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루 벌어 하루 쓰면서 애들 공부시키라, 결혼시키라 힘들었을 텐데
어찌 그 어렵던 시절에 국민연금 넣을 생각을 했니?
네가 정말 대견하다~ 고맙다, 일순아~”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천일순 씨의 실제 사연입니다 —

경력 단절 여성 추후 납부 확대

회사를 퇴직한 주부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가능 (2016년 12월 시행 예정)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40%~60%를 국가에서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 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2016년 8월 시행)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급여와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평생연금 국민연금 공금할 댄 1355